

Q. 동성애/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최근 매년 퀴어 축제가 열리고, 각종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에서도 동성애가 소재로 왕왕 등장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죄라고 들었는데, 나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교회에 온다면 어떨까요? 그러나 그들과 내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음의 10가지를 기억하세요.

1.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2.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겪는다.
3.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하다.
4. 누군가의 죄를 눈감는 것이 사랑은 아니다.
5.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환영 받아야 한다.
6.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배우고 전해야 한다.
7.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8.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권리가 없다.
9.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10. 동성에 애정을 갖는 것이 죄는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다.

* 위의 글은 미국의 글렌 스탠튼이 쓰고 문화선교연구원이 번역한 "모든 기독교인이 성소수자들에 대해 알아야 하는 10가지"를 발췌한 것입니다.

원문은 www.cricum.org/1048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 필름포럼

집필 및 디자인 문화선교연구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하늬솔빌딩A) B1 필름포럼

문의 02-363-2537 www.filmforum.kr



영화 <싱 오버 미> 무비특가이드

“내 진짜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기 두려워”

-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줄거야 -
- 남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나, 내 진짜 모습은 뭘까 -

필름포럼+서울국제사랑영화제+문화선교연구원

+ 어떤 영화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You are my all in all)'라는 찬양 아시나요? <싱 오버 미>는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데니스 저니건'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매우 감성적인 성향 탓에 음악적 자질이 뛰어났지만, 자신에게 무관심했던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평범한 한 소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을 마음 한 켠에 간직하며 힘겨워하던 어느 날, 누군가 그를 찾아온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 영화 이해를 위한 Tip!

데니스 저니건은 5살 때 원하지 않던 일을 경험한 후, 청소년기를 지나며 성적 정체성 혼란으로 갈등합니다. 부모와 주변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급급했던 그는 결국 동성애자의 길에 접어들고, 갈등과 방황은 더욱 심해지지만 합니다.

저니건의 내적 싸움과 고민을 아주 잘 담아낸 이 영화는 하나님을 만난 그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직접 만든 노래로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독 제이콥 킨드버그는 콘서트 영상, 가족과 친구들, 어린 시절 그가 자란 곳을 편집하여 데니스 저니건을 향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담히 영상으로 그렸습니다. 그가 경험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중심적인 죄에서 그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남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데니스 저니건 한 개인의 이야기로 영화는 각 사람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떻게 그에게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 주며 깊이 있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 영화 보고 나누기

1.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장면, 인물, 대사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야기 나눠주세요.

2. 데니스 저니건이 힘들었던 이유는 성 정체성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친구 척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은밀한 비밀이나 부족함을 알고도 누군가 지지해줬던 경험이 있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느꼈나요?

3. 저니건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곧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 함께 볼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